

‘까칠’ 청자부녀, 티격태격 예술동행



9 강진 청자명인 1호 김경진·딸 보미씨

父 30년간 흙 연구·전통기법 외길 中 국가주석 시진핑도 작품 소장

청자 커피 핸드드립 세트 완성 한국 청자공모전 디자인 최우수

전통 vs 실험...서로에 자극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처럼 자연의 힘이 많이 빌리는 예술 장르도 드물다. 예술가의 열정과 집념도 중요하지만 흙, 물, 불이 조화를 이뤄야 완벽한 빛과 곡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도자기다. 모든 정성을 다 쏟은 뒤 자기의 곡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온 빛을 났을 수 있도록 가마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수 십 년 흙을 만져온 장인도 티끌만한 흙이라도 발견되면 가마에서 막 나온 작품을 서슴없이 망치질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자를 가르치는 과정도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다.

전남 무형문화재 청자기능 보유자이자 강진청자 명인 1호 김경진(55) 작가와 딸 보미(26)씨의 관계도 그러하다. 다정한 부녀이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만큼은 '까칠하다'. 이 때문에 부녀가 청자를 빚으며 티격태격 '예술 동행'을 하고 있는 강진군 대구면 탐진청자의 공방은 불이 들어간 가마 보다 뜨겁다.

보미씨는 김 작가가 곁에 있어 세상에 내놓은 딸이지만 함께 작업을 할 때, 김 작가는 무서운 스승이 된다. 30년 넘게 흙을 연구하고 비색 청자를 빚고 있는 김 작가는 실패의 과정을 너무 잘 알기에 보미씨의 시행착오가 답답지 않다. 지난 2010년 보미씨가 커피 원두를 갈고, 내릴 수 있는 '청자 커피 핸드드립 세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김 작가의 마음이 그렸다.

보미씨는 커피 그라인더가 담긴 청자와 핸드드립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다. 여기에 자개와 옷철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접목해 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작품을 완성한 보미씨는 오랜 시간 직업이 청자 커피 핸드드립 세트를 사용해 보면서 기능적으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갔고,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에서 특상을 받았다. 또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2013년), 대한민국 공예품대

전 금상(2014년) 등을 수상했다.

청자 작업을 통해 공예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경험한 보미씨는 전남대 대학원에 진학해 공예 분야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다.

딸의 새로운 시도에 굽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평생 전통적인 기법에 골몰했던 김 작가의 작품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소장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딸의 작업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딸이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며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딸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을 보며, 강진 청자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1980년대에는 판로도 마땅찮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작업이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흙과 선조의 도예기법을 연구하면서 작품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고단한 과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한 때 딸에게 전통의 방법을 고집했던 것이다.

보미씨 또한 아버지의 이런 고집이 싫은 것만은 아니다. 보미씨에게 아버지는 가장 혹독하게 단련된 강철로 만들어져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나침반 같은 존재다.

“아버지의 작업을 거들면서 청자의 매력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이죠. 최근 여러 작업을 통해 전통에 트렌드를 접목하면 청자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강진 청자를 만들어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딸의 혁신적인 실험은 아버지에게도 큰 자극이다.

“다양한 금속과 옷철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딸의 작업을 보며 전통을 고집하는 작가들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걸 느껴요.”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h@



강진 청자의 맥을 잇고 있는 김경진·보미 부녀가 작업실 한켠에서 보미씨가 만든 '청자 커피 핸드드립 세트'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도의 향기 신선 개인전 30일까지 서울 갤러리 관악

남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양화가 신선 씨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서울 관악구 경 2층 갤러리 관악에서 열린다.

신씨는 '남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꽃, 바다, 산 등 고향 풍경을 과감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봄날 노란 유채꽃밭과 어우러진 남도의 정취, 철쭉과 진달래가 물들인 무등산, 푸른빛 바다가 인상적인 청산도 등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밝고 선명한 색채와 필치가 깊이를 더한다. 특히 파스텔 톤처럼 따뜻한 색상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완도 출생으로 호남대를 졸업한 신씨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전우회, 광주사생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879-5603. /김경민기자 kki@



'청산도'



'소안도의 바람-교감'

봄

풀, 바람과 밀어 최정희 초대전 4월24일까지 515갤러리

'봄날 풀들이 바람에 몸을 흔든다.'

515갤러리는 2015 상반기 기획초대전으로 서양화가 최정희씨를 초대해 '교감의 기록'전을 연다.

최씨는 싱그러움 초록을 뽐내는 풀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아르길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에서 풀들이 때로는 바람에 한쪽으로 누우면서 몸을 낮추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비벼가며 '사르륵' 소리를 내기도 한다.

몸을 겹치고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일사규 사이로 빛을 통과시키고, 그림자를 만든다. 머리 위로 푸르디푸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들 수 있는 풀이 바람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작품에 담아 기록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씨는 현재 조선대 미술대학에 출강 중이다. 문의 062-654-3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MC 김진 채널A기자

매주 금요일 밤 11시

http://tv.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 해남 영암 진도 장흥
- 스카이라이프 13
- IPTV 18

